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18.10 [38~42]

(가)

네는 양주(楊州) | 오솔히여
 디위에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샀다*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디(聖代)를 니르어샀다
 잣다운더* 당금경(當今景) 잣다운더
 성수만년(聖壽萬年)흐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샀다*
 아오 다롱다리
 알폰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둥(德重)흐신 강산(江山)즈오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 신도형승이샀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잣다운더: 도성답구나.
 * 함락이샀다: 함께 즐거워하도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옥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잣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혼덕혼덕* 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 늠연한: 위엄이 있고 당당함.
 * 번폐하고: 마다하고.
 * 혼덕혼덕: 흔들흔들.

(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먹을 감는 한 시간 남짓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매,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현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홉똥 눈과 부르걸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쭉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통통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칸으로 구분되었고, 각 칸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굿고, 늠름한 기상과 은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라라.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아있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나는 신품이 아님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이 끄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르러서는 정말 **관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륭상(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핑결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날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흰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곱실곱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말이 동실동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 궁륭상: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늪연한 줄 반가온더'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 ④ (나)의 '대숲이 푸르러세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네는 양주 | 쏘올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뽕'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 ② '신도형승이샅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 ③ '지국성왕이 성터를 니르어샅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 ④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 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 ⑤ '만세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4.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5.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 석가삼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다. ㉣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보 기>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읽기 전 활동

작품에서 조선의 도성인 한양에 대한 예찬과 임금의 만수무강, 그리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영광을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작품 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를 읽는 동안 화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네는 양주(楊州) | 꼬을허어
 디위에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대(聖代)를 니르어샷다
 * 신도형승이샷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과거 '양주 고을'에서 현재는 '신도형승'이 된 한양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화자입니다. 화자는 새로운 도읍인 한양의 모습을 뛰어난 경치라며 예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잣다운더* 당금썩(當今景) 잣다운더
 성수만년(聖壽萬年) 허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 잣다운더: 도성답구나.
 * 함락이샷다: 함께 즐거워하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한양의 모습을 '도성답다'며 예찬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앞에서 언급한 '옛날에는 양주 고을'에서 변화한 한양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한양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양의 모습을 예찬한 후 '성수만년'하면 만백성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태조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성수만년'과 같은 어려운 단어의 경우 '만년'같은 쉬운 부분을 통해 장수를 기원하는 단어임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아으 디롱다리
 알폰 한강수(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둥(德重) 허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후렴구인 '아으 디롱다리'가 나온 후 앞은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삼각산이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에 위치한 한양의 지리적 위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배산임수의 좋은 위치에 놓인 도성에서 태조가 만세를 누리길 바라는 화자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기>에서 언급했듯이 임금의 만수무강을 통해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기본적으로 주제가 단순한 시로, 조선 왕조의 시작과 앞날을 축복하고, 태조 이성계의 장수를 기원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내리는 이유는 조선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이 지은 시이기 때문으로, 자신이 주요한 역할을 차지한 조선 개국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시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늙연(凜然)한* 줄 반가운데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없다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 늙연한: 위엄이 있고 당당한.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바위에 서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나무는 바람과 서리를 겪고도 여위지 않기 때문으로, 화자는 항상 푸른 '봄빛'을 가진 소나무의 특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변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 변폐하고: 마다하고.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마을에 심어둔 국화가 귀한 것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국화가 봄을 마다하고 가혹한 겨울에 혼자 피는 모습에서 지조와 절개를 느껴 국화의 이러한 특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록
 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꽃은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화자가 굳이 매화를 심은 이유는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화자는 이렇게 눈속에서 피어나 '한 빛인 줄 귀하게' 여기는 매화가 '그윽한 향기'를 아니 더더욱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암향매화' 또한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어찌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흔덕흔덕: 흔들흔들.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눈이 잦은 날에 대나무를 보고자 하여 창문을 여니 꽃들은 다 어디갔는지 보이지 않고 오직 대나무만이 푸르른 겨울날의 풍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렇게 푸르른 대나무가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한다며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찬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백설' 속에서 '푸르'른 모습을 지키며 '청풍을 반'긴다는 점에서 예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 총평

제목 그대로 화자가 '네명의 벗'에 대해 노래하는 시입니다. 각각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식물의 모습을 통해 선비가 가져야 할 지조와 절개, 그리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읽기 전 활동

<보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기>에서 나온 정보가 단순 글의 요약에 가까우므로 글을 읽고 난 후 보아도 무방합니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먹칠 감는 한 시간 남짓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매,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연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홑뜯 눈과 부르건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힘들게 산을 올라 석굴암에 도착한 글쓴이의 모습으로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석간수를 시원하게 마신 후 돌층대를 올라 석굴암에 들어서는데,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겨진 인왕과 사천왕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은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통통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칸으로 구분되었고, 각 칸마다 보살과 나한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5월 학평 대비 지문&문제 풀이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갸고, 늙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라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석굴암의 문 안으로 들어서자 석련대 위에 올라앉은 '석가의 석상'이 글쓴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석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화자는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내부에는 석상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 좌우 석벽의 허리에는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 역시도 감탄하며 '신품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았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난 신품이 아님이 없다는 것은 좁된 붓 끝이 적이 끄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륭상(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평결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 궁륭상: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앞문은 손질이 많이 이루어져 옛 모습이 많이 사라졌으나, 굴 속은 별로 수선한 것이 없고 옛날의 모습이 남아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좌상과 입상은 '신품'과 같은 뛰어난 작품으로, 석가의 돌 연대도 훌륭하지만, 천장의 장치는 더욱 뛰어나다고 글쓴이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돌 하나로 이렇게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어 낸 것은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라며 석굴암의 모습을 예찬하는 글쓴이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흰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펄펄떨림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곱실곱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살이 둥실둥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는다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석굴암을 감상하고 나온 글쓴이는 석굴암 밖의 경치를 '선경'이라고 말하며 산과 강, 그리고 바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불국사에 오른 날은 흐린 날이었으나, 흐리지 않은 날이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고 하지만, 글쓴이는 자신처럼 속세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선연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불국사에서 석굴암을 보고 느낀 정서를 담아낸 수필입니다. 글쓴이가 불국사에서 보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글쓴이가 어떤 대상을 예찬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가)의 경우 한양의 모습을 '신도형승'이라며 예찬하고 있고, (나)의 경우 소나무의 '늙은'한 특성을, 국화의 '청고'한 모습을,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대나무의 '푸르름'을 예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의 경우 석굴암의 불상들을 '천추에 빼어난 걸작'으로, 주변의 풍경을 '선경'이라며 예찬하고 있습니다.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가)의 경우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던 공간에서 '신도형승'이 된 공간으로 변화한 한양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의 경우에는 각 자연물을 예찬하고 있을 뿐 역사성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의 경우에는 '석굴암'이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의 경우 한양을 이상적인 도움으로 생각하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으며, (나)의 경우 자연물을 예찬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가)와 (나)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우선, (가)의 경우 새로운 도성인 한양의 모습을 예찬하며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나, 한양이 새로운 문물과 제도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또한, (나)의 경우 과거의 문물인 석굴암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나)의 경우 시련을 이겨내는 자연물들을 예찬하고 있으나, 화자가 시련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의 경우 글쓴이가 아름다운 석굴암과 불국사 주변 풍경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뿐, 시련을 겪거나 그것을 이겨내려 하지는 않습니다.

2.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① (나)의 '늠연한 줄 반가온더'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나)의 '늠연한 줄 반가온더'는 자연물인 소나무에 늠름하며 굳센 의지에 대한 감탄을,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인 석굴암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소나무의 항상 푸른 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석굴암 앞문이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 (나)의 '그윽한 향기'에는 매화의 향기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호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석굴암 밖의 경치가 '선경'이라며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④ (나)의 '대숲이 푸르려세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나)의 '대숲이 푸르려세라'는 대나무를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대숲이 푸르른 것을 보았으므로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날이 흐려서 '선경 중의 선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둘 모두 청빈한, 즉 검소하며 깨끗한 삶에 대한 지향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가)에서 '청풍을 반'기는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른빛을 유지하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을 본 화자의 감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보 기>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네는 양주 | 소올히어'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성'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을 뜻하는 것이고, '당금성'은 현재 지금 이곳의 풍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양의 현재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신도형승이샅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 '신도형승이샅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도형승'이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라는 의미임을 통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지국성왕이 성터를 니르어샅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 '개국성왕이 성터를 여셨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인 태조를 예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5월 학평 대비 지문&문제 풀이

④ ‘앞편 한강수여 뒤편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적이 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 ‘앞편 한강수여 뒤편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배산임수의 지형을 가진 ‘덕동하신 강산’에 한양이 위치하였음을 알려 주는 부분입니다.

⑤ ‘만세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 ‘만세를 누리쇼셔’는 표면적으로는 태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 <제1수>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드러나지 않으며, <제4수>에서는 ‘흔덕흔덕’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나무’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제2수>에서는 상승의 이미지인 ‘피어나다’가 있으나, 하강의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수>에서는 하강의 이미지인 ‘눈’과 상승의 이미지인 ‘피어’가 교차되어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제3수>와 <제4수> 모두 ‘사우’의 단점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 빠르게 넘겨야 하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제4수>에는 백설의 흰색과 대나무의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제3수>에는 눈과 ‘한 빛’이라며 눈과 매화의 색채 대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반어적 표현은 단 한번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반어적 표현은 부정적 속성의 묘사에 주로 쓰인다는 점 또한 기억해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궁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제1수>부터 <제4수>까지 각각 ‘풍상’, ‘엄상’, ‘눈’, ‘백설’을 통해 겨울의 계절감을 활용하여 ‘풍상을 겪어도 여위지 않’는 소나무, ‘엄상에 혼자 피’는 국화, ‘눈속에서 피어나는 매화’, ‘백설이 잦은 날’에 홀로 푸르른 대나무와 같은 ‘사우’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보 기>—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① ㉠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흐뭇 눈과 부르짖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제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라며 자세한 모습의 묘사를 통해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② ㉡

→ 석가상의 얼굴을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묘사하고 있고, 불심을 불러일으킨다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③ ㉢

→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을 ‘신품’이라며 하나의 단어로 감동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④ ㉣

→ 석굴암 천장 장치인 ‘궁륭상’을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 ㉡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러한 경치를 '선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자신은 '화식'을 먹는 '속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